

17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신 형 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 정치학 박사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신 형 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 / 정치학 박사

01

머리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문화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참여민주주의’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약 40여명의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시아 민주주의 컨퍼런스(ADC)로서 개최된 이번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는 아시아 재단(AF),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인도네시아국제NGO포럼(INFID)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관하여, 아시아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협력과 연대활동을 위한 공동의 관점과 전략개발을 목표로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요 참가자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형식 연구소장,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이성훈 사무총장, 엠네스티 국제지부(Amnesty International)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책임자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박사, 포럼 아시아의 존 사무엘(John Samuel) 사무총장, 아시아 재단의 인도네시아 대표 산드라 하미드(Sandra Hamid)박사, 아시아자유선거네트워크(ANFREL)의 이찰 수프리야디(Icchal Supriadi) 사무총장, 말레이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Malaya)의 잉쿠 후이(Ying Khoo Hooi)교수, 인도네시아국제 NGO포럼(INFID)의 수겡 바하기조(Sugeng Bahagijo)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Indonesia)의 바구스 타크윈(Bagus Takwin) 교수 등 아시아 지역의 저명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 대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1986년 필리핀의 ‘피플파워(People Power) 혁명’, 1987년 한국의 6월민주항쟁, 1988년 버마의 88운동 등 1980년대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을 살펴보고, 현재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진전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30년 전에 일어난 피플파워를 돌이켜보며 현재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고 민주주의 국제연대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학술행사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개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퇴보가 나타남과 동시에, 민주적인 공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시민혁명’은 전세계 특히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 시민사회는 촛불시민혁명의 교훈으로 아시아의 인권 보호와 민

Asia Democracy Conference (ADC) 2017

Culture and Democracy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akarta, Indonesia

• Date **21-22**(Monday and Tuesday) **August 2017**

• Sponsor

Opening Ceremony

- Opening Remarks - H.E. AM Fachr |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Indonesia
- Welcome Remarks - Hyung-sik Shin | Korea Democracy Foundation, Director of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Indonesia Representative, Asia Foundation
-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and Program
- Moderator - Anselmo Lee | Asia Democracy Network, Secretary General

Session 1 (plenary)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cy Movements in Asia.

- Presentations - **Korea:** Hyung-sik Shin | Korea Democracy Foundation
- **Malaysia:** Ying Khoo Hooi | University of Malaya
- **South Asia:** John Samuel | FORUM ASIA
- **Southeast Asia:** James Gomez | Amnesty International for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
- Discussants - Amina Rasul | Philippine Council for Islam and Democracy
- Ichal Supriadi |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 Moderator - Anselmo Lee | Asia Democracy Network

Session 2 (plenary)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onesia

- Presentations - Muhammad Hikam | President University
- Philipp Vermeire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Bambang Harymurti | Tempo (Indonesian magazine)
- Takwin Bagus | University of Indonesia
- Abssa Wahid | GUSURian Network Indonesia
- Discussants - Sugeng Bahagijo |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 Ichal Supriadi |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 Dwi Astuti | ASUAPINRA
- Sandra Hamid | The Asia Foundation Indonesia
- Moderator - Mugiyanto |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Session 3a

Culture and Democracy, Religious Tolerance, and Extremism

- Presentations - **Thailand:** Sunai Phasuk | Human Rights Watch
- **Myanmar:** Myo Win | Smile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
- **The Philippines:** Amina Rasul | Philippine Council for Islam and Democracy
- Discussants - Abssa Wahid | GUSURian Network Indonesia
- James Gomez | Amnesty International SEA
- Moderator - Sandra Hamid | The Asia Foundation Indonesia

Session 3b

Economy, Ine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mocracy

- Presentations - **Malaysia:** Lin Mui Kiang |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 **East Timor:** Santana Soares | The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 **Nepal:** Bimala Rai Paudyal | Agriculture and Forestry University
- Discussants - William Gais | Migrants Forums in Asia
- John Samuel | Forum Asia
- Moderator - Rafendi Djamin | Human Rights Working Group

자카르타 웹자보

주주의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한국 국회의 탄핵심판 동의안 가결과 2017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으로 바야흐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역동적이면서 평화로운 촛불 시민혁명은 전세계에 한국 시민운동과 민주주의의 저력을 전세계에 보여주었다.

최근 세계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프리덤하우스의 자유지표를 보아도 최근 10여 년 동안 자유가 신장되지 않고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나라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재스민 혁명과 아랍의 봄으로 중동에서 불던 거대한 민주화의 열풍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혼란과 고통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는 권위주의 정부가 다시 들어섰고 시리아는 끝 모를 내전과 테러에 휩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가져왔다. 터키에서는 2016년 7월 15일 쿠데타 불발 이후 5만 명이 구금됐으며 17만 명의 용의자가 쿠데타 배후의 그림자 세력과의 관련성을 조사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선진국 민주주의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들의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은 개도국 민주주의의 지원을 위축시키고 있다.

한때 민주화 이행과 함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양상을 바라볼 때 무척 안타깝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수화 물결과 대면하고 있던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일어난 역동적인 정치개혁 과정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2017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다.

02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의
주요내용

제1세션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미래 과제」의 기조발제자인 신형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미래 과제」의 주제 발표에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만족한 나머지 여타 개혁과제들을 여의도 정치권에 맡겼던 ‘국민운동본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30년이 지난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보장문제,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문제 등 여러 사회구조 개혁에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 아시아’의 사무총장인 존 사무엘(John Samuel)은 「남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상황과 전망」의 주제 발표에서 “남아시아에서 배제에 기반한 ‘정체성 정치’, 불신과 폭력 등이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부패, 민주적 시민 사회공간의 축소,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점증하는 인권 유린 등이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 실현에 대한 도전 과제이다”라고 강조하고, “각국에서 매년 실시되는 선거에도 불구하고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 정치·경제 엘리트들간의 유착이 남아시아 많은 나라에서 엘리트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낳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남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이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소국가들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남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 인권에 대한 새로운 과제이다” 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는 “남아시아 각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민 사회의 역량 강화와 독립적 미디어와 신세대 지도자들 육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지역 조직 네트워크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

력과 더불어 모두를 위한 자유, 정의, 인권을 향한 새로운 노력이 함께 할 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엠네스티 국제지부(Amnesty International)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책임자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박사는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연구」의 주제 발표에서 “최근 동남아시아 각국의 시민사회 공간의 축소 그리고 인권유린과 사찰, 테러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를 향한 각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역설하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연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 권력의 한 지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서방에서의 민주주의 성공명제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특히 중국에 의해 시험대상에 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특히 남중국해를 둘러싼 정치적 영향력, 동남아시아 지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경제적 투자, 민간부문 주도의 부동산 개발 이니셔티브, 중국학교 설립, 중국어 미디어의 증가 등 이들 지역 내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한 “중국 본토인들의 움직임과 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우호적인 투자, 여행, 퇴직 비자 협정 등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인권레짐이 진화함에 따라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University of Malaya) 쿠잉 후이(Khoo Ying Hooi) 박사는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진전 상황과 관련하여, 「아세안(ASEAN) 내 시민사회의 축소」를 주제로 발표했다. “2007년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 발표 이후, 아세안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과 민주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 국가에서는 특히 인권, 민주주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헌장의 원칙들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았고, 심지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들 일부 회원국에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강요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사회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후 세션에서서는 다민족, 다종교 등으로 구성된 아시아 각국에서의 문화적 이해와

종교적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평등 문제의 극복 방안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¹⁾, 민주적 시민사회공간의 확대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를 논의하였다.

와히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딸인 알리사 와이드(Aliisa Wahid) 구스두리안(GUSDURIAN) 네트워크 대표는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용적 참여민주주의」의 주제 발표에서 “1998년에 완전한 기능을 가진 민주주의 정권이 자리 잡고, 유권자의 참여 역시 1999년의 민주적 선거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부의 불평등의 심화와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남용, 종교적 극단주의에 근거한 분리주의 운동을 비롯한 무장 범죄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태국 ‘인권 감시’(Human Rights Watch)의 순나이 파숙(Sunai Phasuk) 선임연구원은 “태국의 남부국경 지역 말레이족 무슬림이 세력화되어 국민혁명전선(BRN: Barisan Revolusi Nasional or National Revolution Front)을 중심으로 태국 관리들의 착취, 부패와 부정에 대항하여, 2004년부터 13년 동안 전례 없는 폭력적이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 정부가 무슬림들의 광범위한 민주적 참여와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갈등 세력들 간의 중간자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민주적 참여를 가로막고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현재 태국의 군사통치 하에서는 쉽지 않음”을 역설하였다.

미얀마 미소교육·발전 재단(Smile Education and Development Foundation)의 대표 미요 윈(Myo Win)박사는 미얀마의 정치상황을 전하며, “1996년, 97년을 기점을 종교적 극단주의 혹은 근본주의가 최근 들어 더욱더 심해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군부가 종교를 도구로 사용하여 인종차별주의자와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얀마에서 증오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종교적 민족주의의 발호는 현재 미얀마의 심각한 걱정거리이다. 종교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그들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는 일제 식민지 세대와 군사독재 시대의 유산이다”고 강조했다.

동티모르(Timor-Leste)의 독일국제협력협회(GIZ)의 수석 보좌관인 산티나 소아레

1)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함께 어떤 노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약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2015년 9월 전 세계 UN 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다.



스(Santina Soares)는 「동티모르의 경제, 불평등, 지속가능발전 및 민주주의」의 주제 발표에서 “동티모르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굿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동안 동티모르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시행하거나 시행하기로 약속한 공약들을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가건설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SDGs 이행 로드맵을 정부가 지키도록 지원과 감시를 해야 하며, SDGs 이행에 관한 경험 공유와 학습에 관하여 남남협력의 필요하고,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과정 만이 아니라 속의민주주의를 증진하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2) 새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00년 UN에서 전세계의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8개 목표가 만들어졌다. ①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②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성 평등과 여성 능력 고양,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산모 보건 증진, ⑥HIV·AIDS, 말라리아, 기타 질병 퇴치, ⑦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⑧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네팔 대통령 비서실의 비말라 라이 파우디얄(Bimala Rai Paudyal) 박사는 「민주주의, 경제 그리고 포용: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의 주제 발표에서 네팔의 주요 민주화운동 과정을 경제성장과 포용, 발전의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젠더와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평등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새천년발전목표(MDGs)²⁾의 성과와 경험을 SDGs 와의 연관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가부장적이고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젠더, 카스트, 인종 차별은 여전히 빈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효과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데 장애로 작

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므로 민주주의, 성장, 공정한 발전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층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헌법을 준수하고 SDGs를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네팔이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한데, 정치적 의지는 민주적·포용적 거버넌스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03

6월민주항쟁과
촛불시민혁명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오늘날 한국 민주화 이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기억 위에서 급속히 고양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량은, 1987년 6월민주항쟁에서 극적으로 폭발하였다. 그 결과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6.29선언이라는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6월민주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탄생한 소위 '87년 체제'는 이후 오늘날까지 30년을 지속하면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대폭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6월민주항쟁의 한계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6월민주항쟁은 탈군사독재 민주화를 이룩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지만 군사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민주화운동세력 주도의 민주정부 수립 실패는 독재정권의 후계 세력이 합법적으로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6월민주항쟁에서는 여러 이유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주화운동 진영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6월민주항쟁 이전부터 주장했던 민주헌법을 쟁취하기 위해 대통령권한의 견제장치의 마련이나 기본권, 노동권, 경제민주화 등 여러 문제에서 강력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았다.

당시는 민주화운동세력이건 일반시민이건 헌법 개정보다도 대통령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6월민주항쟁의 경험과 기억 역시 정치적/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는 가운데 민주주의도 역시 도전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로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87년 6월민주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만족한 나머지 여타 개혁과제들을 여의도 정치권에 맡겼던 ‘국민운동본부’의 전철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30년이 지난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민들은 개헌,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보장문제, 경제민주화, 지방분권 문제 등 여러 사회구조 개혁에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선거 때만 하는 민주주의도 곤란하다.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가 시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체화되어야 진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한국 정치의 위기의 순간마다 늘 혁명적 광장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항쟁과 혁명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것은 일상의 혁명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제도만큼이나 민주주의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그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주권자 시민들이 탄생했다. 단순히 탄핵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탈권위주의, 정경유착 해체, 탈핵, 분권주의, 일상적 민주주의 등 다양한 과제로 분화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를 열망하였다. 촛불시민혁명은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무능을 넘어 국정을 농단했던 대통령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탄핵시켰다. 촛불 시민과 주권자가 만들어낸 역사다.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인문적으로 성숙한 주권자 시민의 토대가 정치도 완성하고, 경제도 완성한다. 그 모든 것이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 역량의 성숙을 위하여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된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출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야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민주주의의 후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과 시민사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 수립 이후 촛불은 이미 광화문을 넘어 여의도로 기수를 향하고 있다. ‘촛불과 광장’의 힘은 그저 시민운동의 주체나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의 중심부로 진격해 들어갈 것이다.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의 처리 여부에 따라 촛불이 종국적으로 어디로 향할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바야흐로 시민들은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출처: Photo by Lee Jin-man, AP
<http://www.dailymail.co.uk/wires/ap/article-3977478/South-Korean-capital-glow-anti-presidential-fervor.html>

04

촛불시민혁명이 아시아에 보내는 메시지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 지배라는 역사의 아픈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와 독재체제, 전쟁과 학살 등의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아시아에도 바야흐로 정기적인 선거, 자유로운 정당간의 경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해 여타의 시민적 권리들이 도입되거나 부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한 그 동안의 추격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민주화가 한 흐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의 전파효과는 1986년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필리핀의 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정치동학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피플파워 혁명’에서 보여지듯이 ‘밑으로부터의 대중 저항’으로 분출했다는 점을 볼 때, 그 운동 방식에 있어서 광주항쟁의 대외적 전염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986년의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은 분명히 위대한 승리였다. 비교적 피를 덜 보는 방식으로 강력한 독재를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아무리 강력하게 보이더라도 보통사람의 힘으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는 꿈을 키웠다. 피플파워 혁명의 지구적 반향은 엄청났다.



< 필리핀, 피플파워(People power, Philippine) >

출처: flickr.com

<https://tallypress.com/fun/10-important-items-to-bring-to-bersih-4-0-rally/>



< 네팔, 1990년 민중운동, (People's Movement (1990), Jana Andolan) >

출처: 일부발체

<https://www.youtube.com/watch?v=eONgp6ly2vA>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을 계기로 1980년대 중, 후반에 아시아지역은 본격적인 민주화 국면에 돌입한다. 1986년의 마르코스 타도는 한국의 1987년 6월민주항쟁을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6월민주항쟁 동안 19일간 마라톤 시위가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3일은 100만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진영은 야당과 민주대연합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두환 군부독재체제가 민중 항쟁에 굴복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6월민주항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86년 필리핀의 EDSA광장에서 시작된 공적 공간의 점거는 전세계에서 되풀이되는 전술이며, 이후 카이로의 타흐리흐 광장과 이스탄불의 탁심 광장,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시아의 민주화 추세는 1987년 7월 타이완정권이 이미 약속한대로 계엄령을 공식적으로 해제하고 민주화 일정을 가속화함으로써 한층 강화되었다. 1989년 6월 중국 북경 천안문에서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물결은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부아시아로 확산되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촉구 시위가 있었고 태국은 1992년 5월 민주화 시위로 군부가 퇴진하면서 민간정부가 수립되었다. 네팔은 1990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전환하였다.

한편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아시아의 민주화 물결 이후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왔다. 대외적으로는 2001년 미국의 9.11 사건으로 본격화된 ‘테러와의 전쟁’, 신자유주의와 금융 세계화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인한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영향력 확대, 내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과 실업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 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는 제2의 ‘피플파워 혁명’의 민주화 물결을 목도하고 있다. 그 동안 곳곳에서 힘겹게 투쟁해온 많은 노력들이 연결되어 이제 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에는 30년 전과 역으로 남부 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로 민주화 물결의 방향이 바뀌어 흐르고 있다.

2015년 1월 스리랑카는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가 구

성되었다. 2008년 내전을 종식하고 제헌의회 선거를 치룬 네팔은 2015년 8월 헌법을 제정하여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2015년 말, 민주화운동가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는 개혁적 성향의 조코비(Joko Widodo)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2015년 8월 4차 ‘버시’(말레이어로 깨끗하다는 뜻)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 11월 다시 5차 버시(Bersih)가 열렸다. 그리고 2016년 필리핀 대선에서 전통적 지배체제의 바깥 인물인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당선되었다.



< 말레이시아 버시(BERSIH, Malaysia) >

출처: Photo by Sadayuki Mikami / AP
<https://www.nbcnews.com/news/asian-america/people-power-how-pixar-s-oscar-nominated-ronnie-del-carmen-n525911>

동북아시아에서 민주화의 열기와 에너지는 더욱 역동적이다. 2014년 3월 타이완 대학생들의 ‘졸속적인 중국과의 자유서비스무역협정 반대 입법원 점거 시위(해바라기 학생운동)’가 있었고 이러한 저항운동은 2017년 1월 정권교체로 이어져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했다.



< 홍콩 우산혁명 시위

(Umbrella Movement, HongKong 2014) >

출처: <http://edition.cnn.com/2017/03/27/asia/hong-kong-umbrella-movement-charges/index.html>

2014년 9월 홍콩 대학생 주도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 시위’가 79일간 진행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 주역인 대학생들은 2016년 9월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15년 9월 민주주의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실즈(SEALDs,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학생 긴급행동)가 결성되어 새로운 민주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세대’가 아시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10월 시작된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이러한 아시아 민주화 물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진행형인 이 촛불시민혁명은 한국에서만 고립적으로 발생한 사

건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은 국내에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로 확산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은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 역사와 운동에 획기적인 사건이다. ‘촛불시민혁명’은 전세계 특히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는 촛불 시민혁명의 교훈으로 아시아의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끈질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등지의 수많은 민주주의 지원 및 인권 보호 단체들로부터 물질적·정신적 도움과 지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최초의 나라이다. 아시아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이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민주주의 지원 및 인권 보호 역할을 할 때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원칙과 비전,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원조철학이 한국사회에서는 경제 제일주의와 공룡화된 경제부처들에 의해 통제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원조규범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인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ODA) 영역의 적폐도 청산되어야 한다. 그동안 외형적인 성과에 치중되었던 경제제일주의에 입각한 공적개발원조도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중심의 공적개발원조로 정책 변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식의 민주주의 지원을 이질적이고 간섭적으로 보는 반면,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다. 아시아는 탈군부독재, 신생민주주의의 공고화, 평화공존과 인권외교의 조화, 신자유주의의 극복, 각국 시민사회의 연대 등과 같은 중차대한 과제의 이행을 요구하는 전환 시대와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시민사회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참고문헌

- 1) Hyung-sik Shin, “The Historical Evolution and the Future of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Korea”,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2) James Gomez, “The Sta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Southeast Asia”,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3) John Samuel, “Promises and Performance of Democracy in the South Asia”,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4) Khoo Ying Hooi, “Shrinking Civic Space in ASEAN”,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5) Alissa Wahid, “INCLUSIVE &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ONESIA”,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6) Bagus Takwin, “Indonesian Democratic Quality”,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7) Sunai Phasuk, “Military Rule, Failed Reconciliation Attempts, and Escalating Insurgency in Southern Thailand”,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8) Santana Soares, “Economy, Ine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Timor-Leste”,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9) Bimala Rai Paudyal, “Democracy, Economy and Inclusion: How do they complement?”, *Culture and Democracy - Inclusiv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DF 2017)
- 10) Joong-seok Seo, *Contemporary History of South Korea: 60Years* (KDF 2005)
- 11) Myung-sik Lee, *The Histo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Korea* (KDF 2010)

- 12) 최장집, 박상훈, 서복경, 박찬표, 『양손잡이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7)
- 13) 손호철,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 14) 박원순, 「촛불이 바꾼 것과 바뀌어야 할 것」, 『‘촛불과 한국사회’: 광장의 진화를 위하여』 (세교연구소 2017)
- 15) 송주명, 「광장 시민혁명과 민주, 평등, 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 『2017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안 보고대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 2017)
- 16) 퇴진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 (퇴진행동 2017)
- 17) 홍일표, 「한국 시민운동과 ‘촛불시민’」, 『민주누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 18) 김동춘,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평화포럼 2016)
- 19) 조지 카치아피카스, 『아시아의 민중봉기』 (오월의 봄 2015)
- 20) 박은홍, 『평화를 향한 아시아의 도전』 (나남 2008)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17년 9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